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20년 10호

ISSN 2093-3118



iit.kita.net

신남방권 주요국 수입구조 분석

2020년 4월
전략시장연구실 조의윤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약]	i
I. 신남방권 수입시장 동향	01
II.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분석	04
III. 고급소비재 수입 분석	19
IV. 시사점 및 결론	36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전략시장연구실 조의윤 연구원 (02-6000-5263, jjoy1227@kita.net)

신남방권은 풍부한 인구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수입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 중이다. 신남방권의 상품 수입은 2018년 1조 9,43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수입이 2010년 대비 49.1% 증가함에 따라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1.4%p 상승했다. 신남방권 수입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對인도 수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본보고서는 신남방권 주요국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수입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했다. 신남방 주요국의 소비재 수입비중은 증가세인 반면, 중간재 수입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남방 주요 5개국 모두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태국과 싱가포르의 소비재 비중은 2.0%p 이상 상승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의 소비재 비중은 각각 1.6%p, 0.8%p, 0.5%p 상승했다. 고급소비재 수입은 전체 소비재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 중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고급 소비재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전체 소비재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도의 고급 소비재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5.4%로 고급소비재 시장이 다른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베트남은 실내장식, 인도는 패션의류, 싱가포르는 뷰티제품의 수입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한편, 자국의 중간재 조달이 늘어나며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중간재 수입비중이 감소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인도를 중심으로 고위기술 중간재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중위기술 중간재 수요가 늘었다.

신남방권은 우리기업의 핵심시장인 만큼 신남방권 수입시장의 변화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간재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해 빠르게 성장 중인 고급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고급소비재 중 뷰티 제품을 제외하면 신남방 수입시장 내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수입수요가 큰 패션의류, 패션잡화 진출이 더더 우리나라 제품은 각 국가에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간재 수출은 기술수준을 고려한 국가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은 고위기술 중간재, 인도는 중위기술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꾸준히 확대 중으로 관련 품목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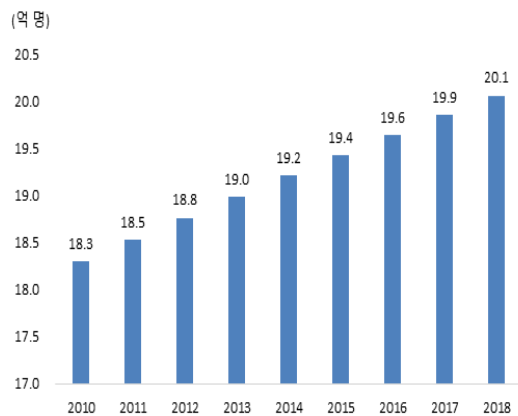
본 문

I. 신남방권 수입시장 동향

■ 신남방권은 풍부한 인구나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수입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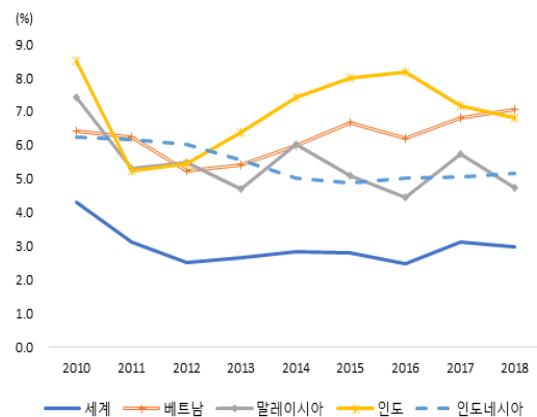
- 세계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신남방권¹⁾은 2018년 기준 20억 명을 초과
 - 인도는 13.5억 명으로 신남방권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아(2.6억), 필리핀(1.1억), 베트남(9천5백만) 등이 뒤를 이음
- 신남방권에 속하는 11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8년 5.2%²⁾로 세계 경제 성장률(3.0%)보다 2.2%p 높음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매해 5.0%를 상회
 - * 2018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베트남 7.1%, 인도네시아 5.2%, 인도 6.8%

<2018년 신남방권 인구 추이>



자료 : World Bank

<신남방권 주요국 경제성장률>



자료 :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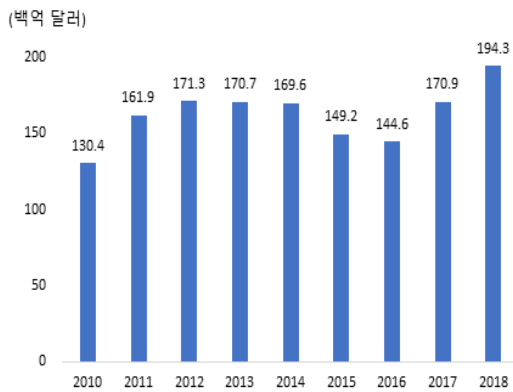
1)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

2) 2018년 기준 11개국 경제성장률의 산술 평균. 브루나이(0.1%)를 제외한 경제성장률 평균은 5.7%

■ 신남방권의 상품수입은 2018년 1조 9,431억 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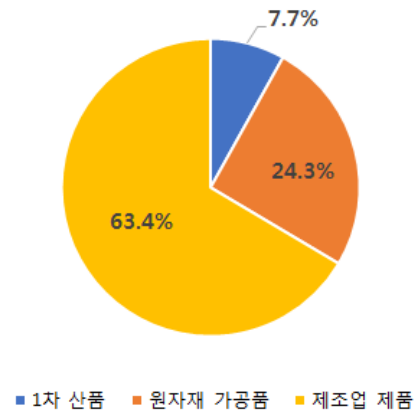
- 최근 8년간(2010~2018) 수입이 49.1% 증가함에 따라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p 상승(2010년 8.4%→2018년 9.8%)
 - 베트남 수입은 2018년 2,355억 달러로 2010년(848억 달러) 대비 177.6% 증가함. 동기간 인도(46.9%), 인도네시아(39.1%), 태국(35.7%)의 수입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계 수입증가율(27.9%)을 상회
- 제조품, 원자재 가공품, 1차 상품은 신남방권 전체 수입에서 각각 63.4%, 24.3%, 7.7%를 차지
 - 제조품 중에는 화학제품(17.1%), 전자기기(15.0%) 등의 수입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신남방권 상품수입 추이>



자료 :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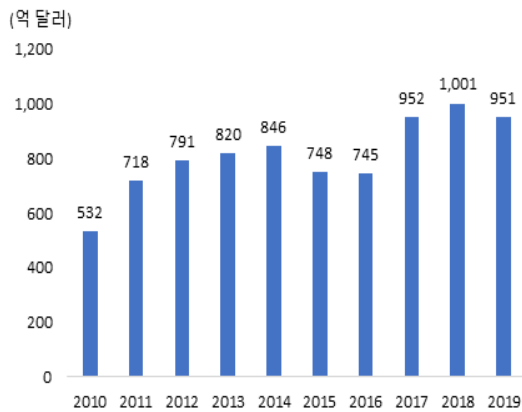
<2018년 신남방권 제품별 수입 비중>



자료 :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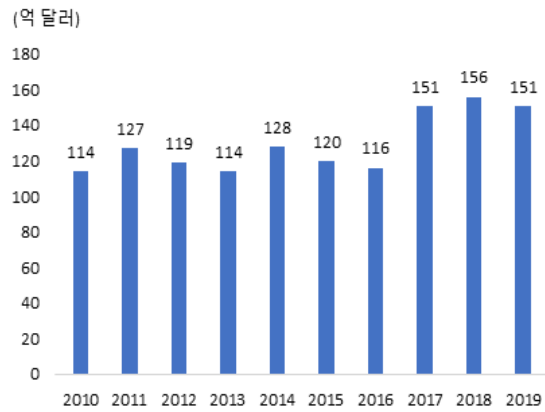
- 신남방권 수입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對인도 수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에서 對아세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9년간 8.0%p 상승 (2010년 20.8%→2019년 28.8%)
 - 2019년 대인도 수출은 151억 달러로 2010년(114억 달러) 대비 32.5% 늘어남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 상위 20개국 중 신남방권 국가는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포함

■ 신남방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세부적인 시장조사를 통한 진출전략 필요

- 본보고서는 신남방권 주요국의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나누어 분석
 - 신남방권 주요국은 우리나라 수출 20위에 포함되면서 대세계 수입이 2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한정
 -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및 고급소비재 수입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신남방권 주요국 수출 규모>

국가	2018	2019
베트남	486	482
인도	156	151
싱가포르	118	128
말레이시아	90	88
태국	85	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II.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분석

[연구 방법]

- 분석시장 :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 분석기간 : 2010~2018년
- 분석대상 : HS 6단위 전 품목(UN Comtrade, ASEAN Stats³⁾)
- 분류방법

① BEC Code 활용해 중간재 추출

3단계	5단계	BEC코드	BEC제품명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1	자동차 차체
		322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부품부분품	42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53	운송장비의 것

주 :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참고하여 저자 작성

② SITC Code 활용해 기술수준별 분류

- 분류방법은 SITC rev.3 products by technological categories(UN Comtrade)를 따라 품목을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본보고서는 Primary Products를 기타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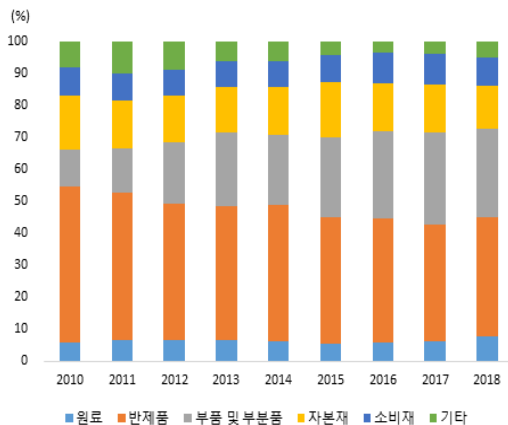
(1) 베트남

- 반도체 등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은 최근 8년간 10배 이상 증가
- 중간재 수입에서 한국제품 비중은 24.2%
-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 중 3분의 1은 한국으로부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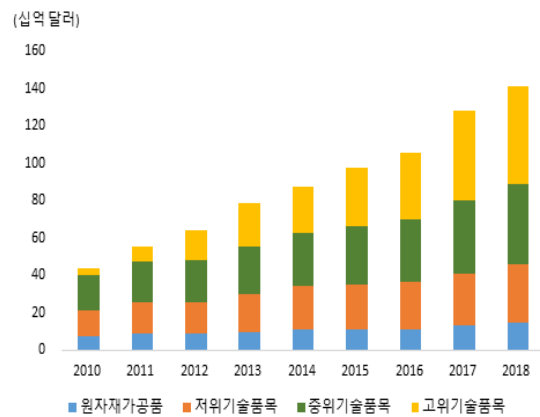
■ (對세계 수입)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중간재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

- 2018년 전체 수입 중 중간재⁴⁾는 65.1%를 차지
 - 2010년 중간재 수입 비중은 60.4%로 최근 8년간 4.7%p 상승
 - 반제품 비중은 2010년 48.7%에서 2018년 37.2%로 줄었으나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이 동기간 큰 폭으로 커짐(11.7%→27.8%)
- 2018년 중간재 수입 중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 품목은 각각 9.4%, 20.4%, 27.9%, 33.9%를 차지
 - 고위기술품목 수입은 52.3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103% 증가

<베트남의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베트남의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2018년 베트남 수입(추정치)은 ASEAN Stats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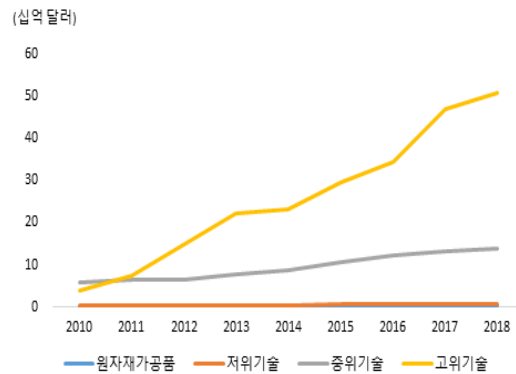
4) 중간재는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을 포함

-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비중은 2010년 대비 각각 1.7%p, 7.0%p, 8.5%p 하락했으나 고위기술품목은 25.4%p 상승

* 중간재 중 고위기술품목 비중 변화: 2010년, 8.5% → 2018년, 33.9%

- 고위기술 부품 및 부분품의 연평균 증가율(2010~2018)은 38.6%를 기록

<베트남의 부품 및 부분품 수입 추이> <베트남의 부품 및 부분품 수입 증가율>



기술수준	2010	2018	연평균증가율 ('10-'18)
원자재가공품	231	469	9.2%
저위기술품목	312	692	10.5%
중위기술품목	5,668	13,883	11.8%
고위기술품목	3,738	50,835	38.6%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기준 고위기술 중간재 중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반도체임

- 상위 10대 품목 대부분은 반도체, 전기전자, 가전제품 등이며 2010년 대비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

<2018년 베트남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 순위>

순위	HS	품목분류	'10-'18 증가율(%)
1	854239	반도체	1354.5
2	851770	전기전자	2250.0
3	854231	반도체	2884.5
4	852990	가전	832.0
5	854140	반도체	2346.1
6	850780	전기전자	16259.1
7	847330	기계류	532.7
8	854890	전기전자	10247.3
9	854290	반도체	813.3
10	851890	전기전자	8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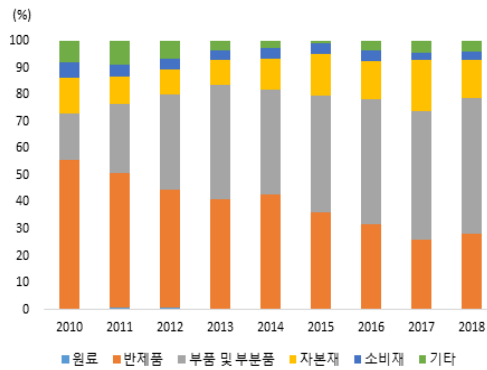
주 : 순위는 2018년 기준 수입규모가 큰 순으로 정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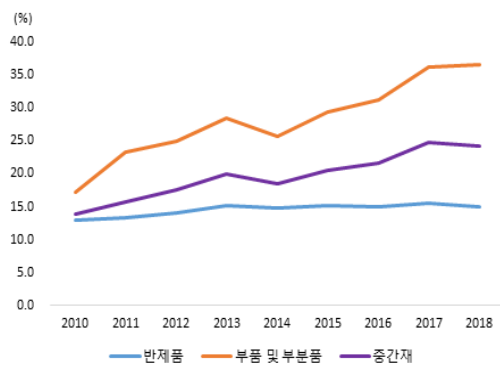
■ (對한국 수입) 對한국 중간재 수입은 부품 및 부분품, 고위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18년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 중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각각 27.9%, 50.6%로 중간재 수입은 78.6%를 차지함
 - 2010년 72.6%였던 중간재 비중은 2013년 83.2%를 기록 후 다소 하락세
- 베트남 對세계 중간재 수입에서 2018년 한국제품 비중은 24.2%로 2010년(13.8%) 대비 10.4%p 상승

<베트남의 가공단계별 對한국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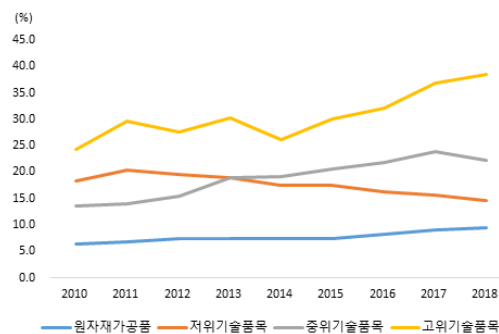
<베트남의 중간재 수입 중 한국 비중>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5%, 14.7%, 22.3%, 38.4%를 차지
 - 고위기술품목 비중은 2010년(24.2%) 대비 14.2%p 늘어나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저위기술품목은 가장 큰 하락폭(18.3%→14.7%)을 보임

<베트남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비중>



<베트남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추이>

기술수준	2010	2018	(백만 달러)
			수입증가율 ('10-'18)
원자재가공품	462	1,379	198.4%
저위기술품목	2,564	4,636	80.8%
중위기술품목	2,538	9,587	277.7%
고위기술품목	1,053	20,094	1807.8%

주 : 중간재를 기술수준별로 분류 (원료 및 최종재는 제외)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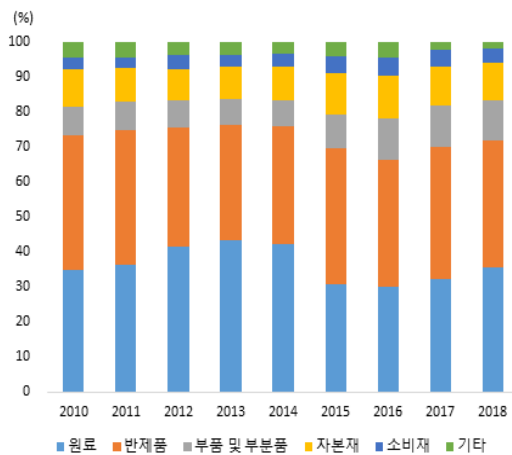
(2) 인도

- 중간재 중 원자재가공품, 중위기술품목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음
- 최근에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이 급증
- 한국 점유율은 저위기술 중간재에서 상승세, 고위기술 중간재에서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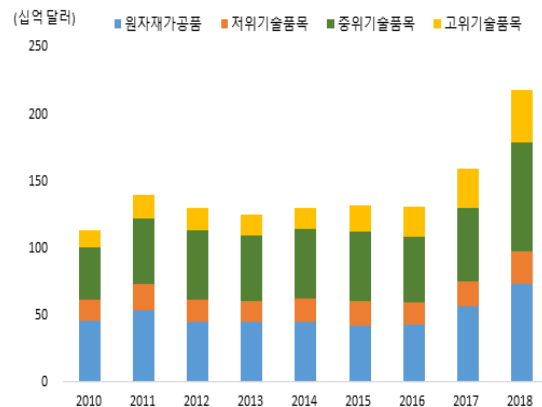
■ (對세계 수입) 총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으나 고위기술품목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

- 2018년 전체 수입 중 중간재는 47.9%를 차지해 2010년(46.6%)과 유사
 - 반제품의 수입비중은 36.4%로 2010년(38.4%) 대비 2.0%p 하락 했으나 부품 및 부분품의 수입은 3.2%p 상승
- 2018년 중간재 수입 중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 품목은 각각 24.6%, 8.4%, 27.3%, 13.3%를 차지
 - 고위기술품목 비중은 2010년 대비 5.5%p, 중위기술 품목은 2.9%p 상승
 - *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은 각각 3.2%p, 1.0%p 하락

<인도의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인도의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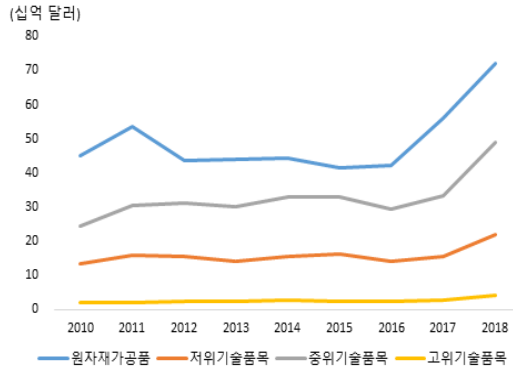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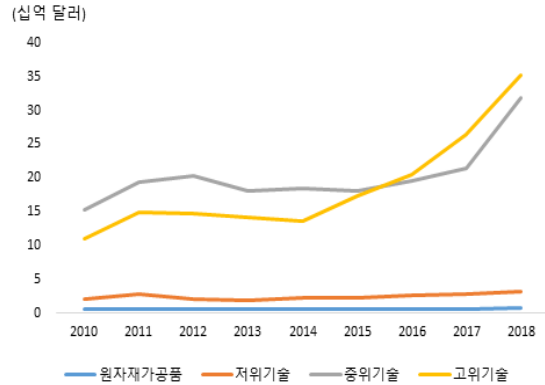
- 고위기술·중위기술 품목의 수입은 부품 및 부분품을 중심으로 늘어남

* 고위기술품목과 중위기술품목은 2010년 대비 각각 219.3%, 107.8% 증가

<인도의 반제품 수입 추이>



<인도의 부품 및 부분품 수입 추이>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고위기술품목은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위기술품목은 기계류와 플라스틱·고무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

<2018년 인도 중위·고위기술품목 수입 순위>

순위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		
	HS	품목분류	증가율(%)	HS	품목분류	증가율(%)
1	310530	화학공업제품	11.5	851770	무선통신기기	328.6
2	841112	기계류	11979.1	854231	반도체	622.6
3	390410	플라스틱·고무	1850.5	854140	반도체	1171.5
4	870899	자동차 및 부품	37.5	854239	반도체	402.6
5	310210	화학공업제품	50.0	847330	기계류	23.1
6	310420	화학공업제품	-17.6	854232	반도체	1740.5
7	870840	자동차 및 부품	304.5	850780	전기전자	1488.1
8	848180	기계류	111.8	852990	가전	89.9
9	390120	플라스틱·고무	69.2	294110	화학공업제품	160.4
10	840999	기계류	105.1	850490	전기전자	224.5

주1 : 순위는 수입규모가 큰 순으로 정함(2018년 기준)

주2 : 증가율은 2010년 대비. 중간재 전체 증가율은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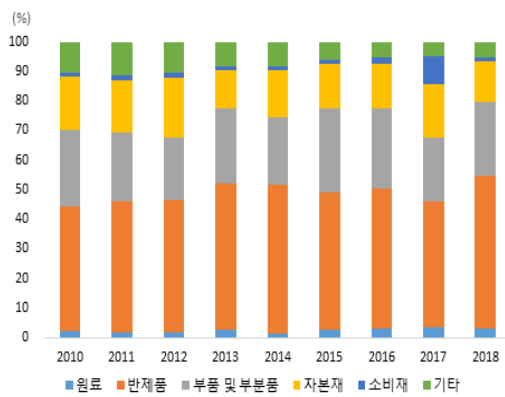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對한국 수입) 對한국 중간재 수입은 반제품, 저위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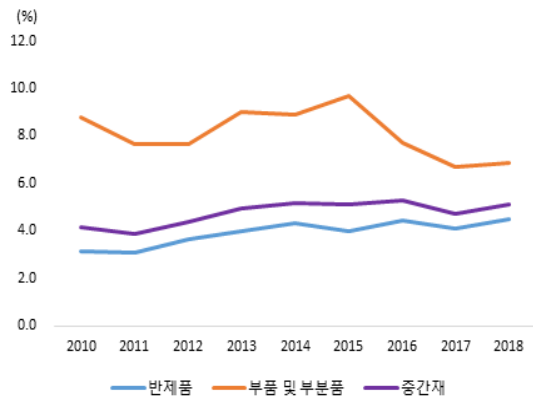
- 인도의 對한국 수입에서 최종재 비중(19.7%→15.2%)은 작아진 반면, 중간재 비중은 커지는 추세

- 2010년 68.0%였던 중간재 비중은 2018년 76.6%를 기록
* 2018년 기준 반제품은 51.8%, 부품 및 부분품은 24.8%
- 2018년 인도의 총 중간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2010년(4.1%) 대비 1.0%p 상승
-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거나 반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전체 중간재 수입 비중이 커짐

<인도의 가공단계별 對한국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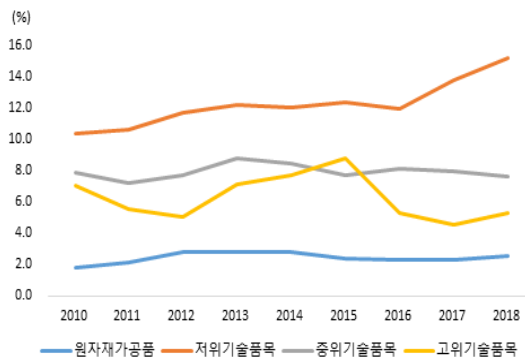
<인도의 중간재 수입 중 한국 비중>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 수입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15.2%, 7.6%, 5.3%를 차지
- 저위기술품목 비중은 2010년(10.4%) 대비 4.8%p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고위기술품목은 가장 큰 하락폭(7.1%→5.3%)을 보임

<인도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비중>



<인도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추이>

기술수준	2010	2018	수입증가율 ('10-'18)
원자재가공품	825	1,844	123.5%
저위기술품목	1,602	3,793	136.8%
중위기술품목	3,153	6,179	96.0%
고위기술품목	911	2,080	128.3%

주 : 중간재를 기술수준별로 분류 (원료 및 최종재는 제외)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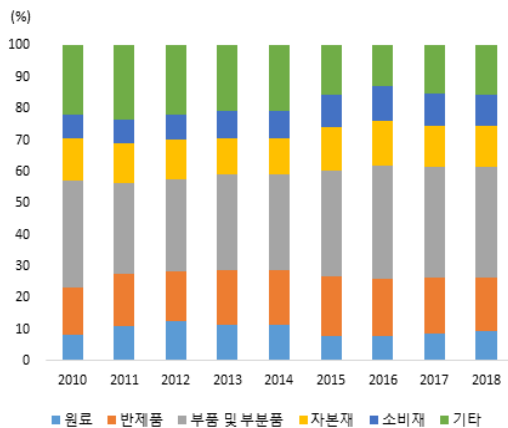
(3) 싱가포르

- 총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작아지는 추세
- 중간재 수입의 대부분은 고위기술품목에 집중
-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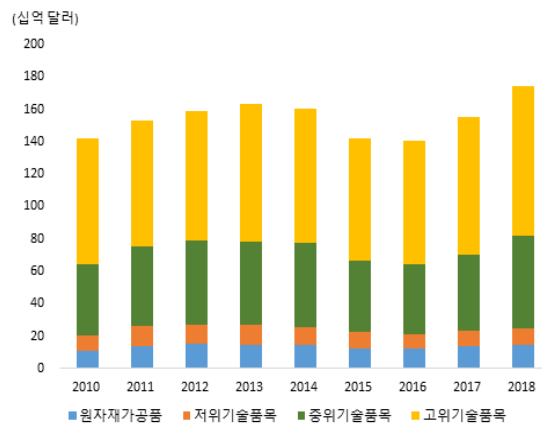
■ (對세계 수입) 총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2016년 이후 작아지는 추세며, 고위기술 중간재 비중도 감소세를 보임

- 2018년 전체 수입 중 중간재는 51.9%를 차지
 - 2010년 중간재 수입 비중은 48.7%로 최근 8년간 3.2%p 상승하였으나 2016년 (54.0%) 이후 하락세
 - 반제품(14.7%→17.0%)과 부품 및 부분품(34.0%→34.9%)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대비 소폭 늘어남
- 2018년 중간재 수입 중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 품목은 각각 7.4%, 5.5%, 29.6%, 47.8%를 차지
 - 고위기술 중간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중간재 수입의 45%를 상회하는 등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비중은 점차 감소세
 - * 중간재 중 고위기술품목 비중 변화: 2010년, 51.0% → 2018년, 47.8%

<싱가포르의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싱가포르의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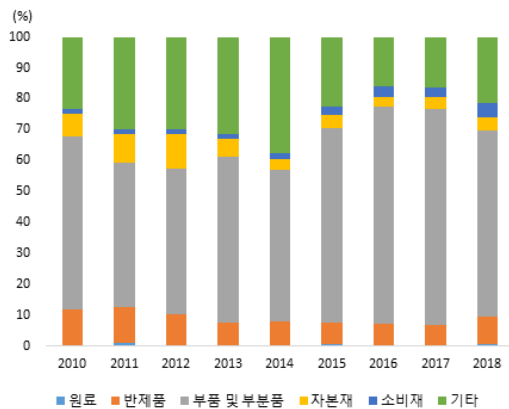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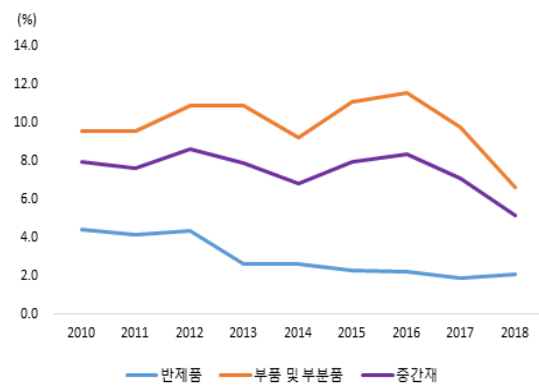
■ (對한국 수입) 對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부품 및 부분품, 고위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18년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 중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각각 9.1%, 60.1%로 중간재 수입은 69.2%를 차지함
 - 2010년 67.3%였던 중간재 비중은 2016년 77.4%를 기록 후 2년 연속 하락
- 싱가포르 對세계 중간재 수입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2018년 5.1%로 2010년 (8.0%) 대비 2.9%p 하락
 - 부품 및 부분품 수입 중 한국제품의 비중은 2016년 11.5%에서 2018년 6.6%로 하락

<싱가포르의 가공단계별 對한국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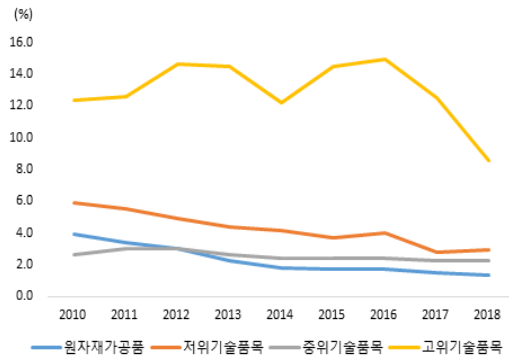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중간재 수입 중 한국 비중>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1.4%, 3.0%, 2.3%, 8.6%를 차지
 - 기술수준별 모든 품목의 점유율이 2010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고위기술 품목이 가장 큰 하락폭(12.4%→8.6%)을 보임
 -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점유율은 각각 2.6%p, 2.9%p, 0.4%p 하락

<싱가포르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비중>



<싱가포르의 기술수준별 한국제품 점유율>

기술수준	2010	2018	증감
원자재가공품	3.9%	1.4%	-2.6%p
저위기술품목	5.9%	3.0%	-2.9%p
중위기술품목	2.7%	2.3%	-0.4%p
고위기술품목	12.4%	8.6%	-3.8%p

주 : 중간재를 기술수준별로 분류 (원료 및 최종재는 제외)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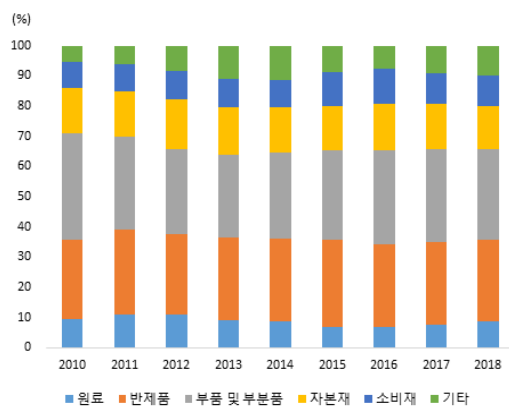
(4) 말레이시아

-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반제품 수요는 증가, 부품 및 부분품 수요는 감소
- 한국산 부품 및 부분품 수입은 최근 8년간 40% 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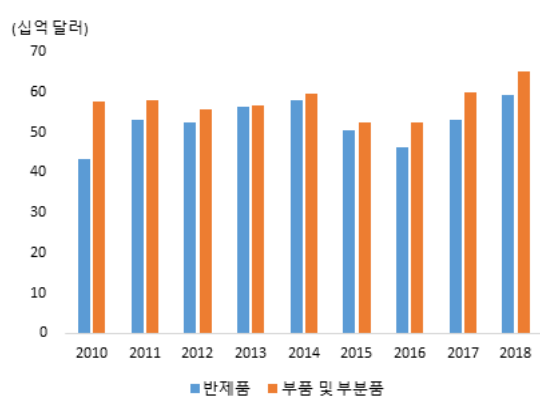
■ (對세계 수입) 총수입 중 최종재 비중이 커지면서 중간재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를 보임

- 2018년 전체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57.3%를 차지하며 2010년(61.4%) 이후 감소세
 - 반제품 비중은 27.2%로 2010년(26.3%)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부품 및 부분품 (35.1%→30.0%) 비중은 5.1%p 하락

<말레이시아의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말레이시아의 중간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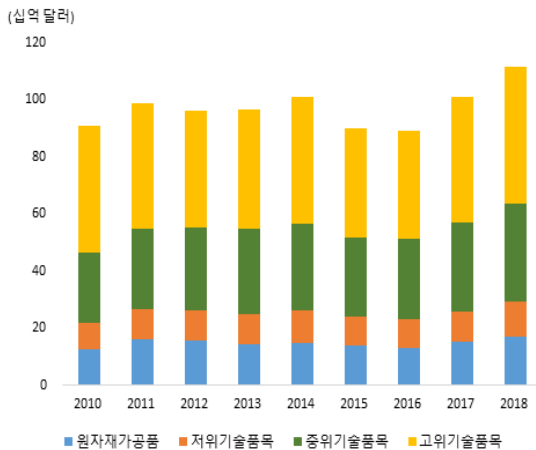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중간재 수입 중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 품목은 각각 13.9%, 9.9%, 27.4%, 38.5%를 차지

- 고위기술품목 비중은 2010년(44.3%) 대비 5.7%p 하락했으나, 중위 기술 품목 (24.5%→27.4%) 비중은 2.9%p 상승

*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비중은 각각 1.3%p, 1.0%p 상승

<말레이시아의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말레이시아 중간재 수입시장 점유율>

기술수준	2010	2018	증감
원자재가공품	12.6%	13.9%	1.3%p
저위기술품목	9.0%	9.9%	1.0%p
중위기술품목	24.5%	27.4%	2.9%p
고위기술품목	44.2%	38.5%	-5.7%p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對한국 수입) 부품 및 부분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한국 제품이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짐

- 2018년 반제품 수입은 2010년 대비 55.9% 증가했으나 부품 및 부분품 수입은 동기간 41.6% 감소

- 2018년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수입에서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각각 38.6%, 26.2%로 중간재는 전체 수입의 64.8%를 차지

- 2010년 75.7%였던 중간재 비중은 최근 8년간 10.9%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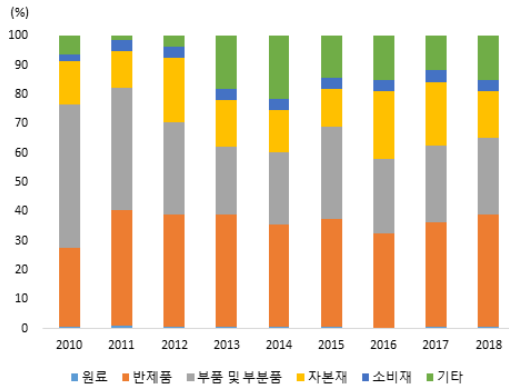
* 2010년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각각 26.9%, 48.7%

- 말레이시아 對세계 중간재 수입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은 2018년 5.0%로 2010년(6.6%) 대비 1.6%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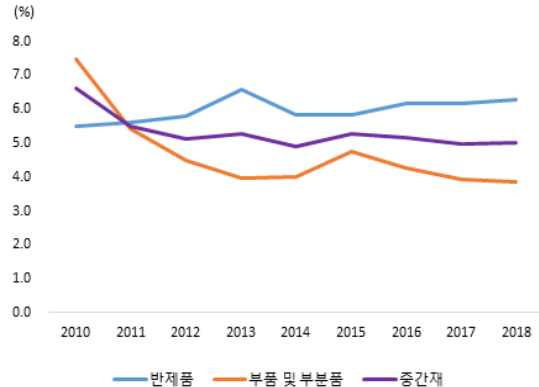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반제품 수입 중 6.3%, 부품 및 부분품 수입 중 3.9%가 한국산 제품

* 2010년 부품 및 부분품의 한국제품 수입 비중은 7.5%

<말레이시아의 가공단계별 對한국 수입 비중>



<말레이시아의 중간재 수입 중 한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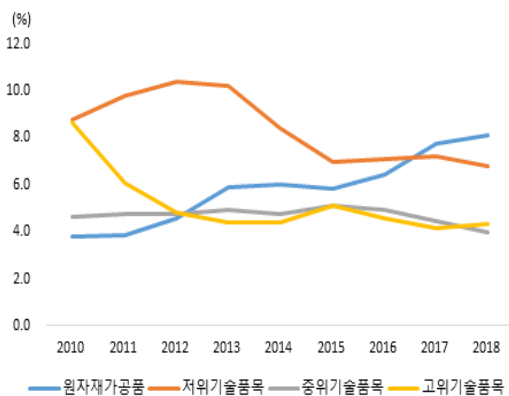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8.1%, 6.8%, 4.0%, 4.3%를 차지

- 원자재가공품 비중은 2010년(3.8%) 대비 4.3%p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고위기술품목은 가장 큰 하락폭(8.7%→4.3%)을 보임

<말레이시아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비중>



<말레이시아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추이>

기술수준	(백만 달러)		
	2010	2018	수입증가율 ('10-'18)
원자재가공품	478	1,396	192.0%
저위기술품목	793	836	5.4%
중위기술품목	1,150	1,355	17.8%
고위기술품목	3,864	2,067	-46.5%

주 : 중간재를 기술수준별로 분류 (원료 및 최종재는 제외)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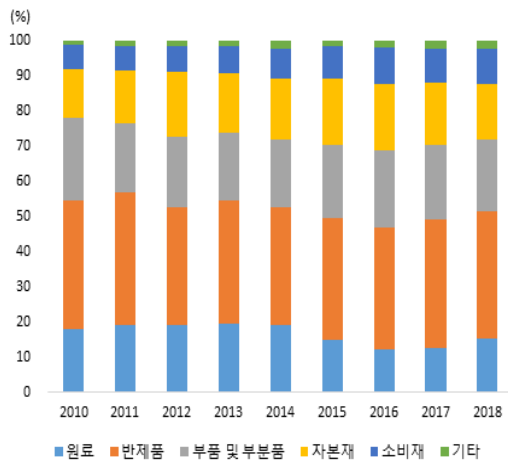
(5) 태국

- 중위기술품목 수요는 높는데 반해, 고위기술품목 수요는 낮음
- 대한국 중간재 수입규모는 최근 8년간 정체된 가운데 기술수준별 전 품목에서 한국 점유율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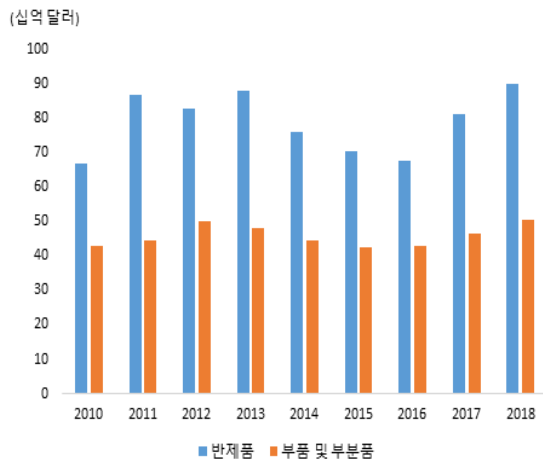
■ (對세계 수입) 총수입 중 중간재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위·고위기술 수입 비중은 동반 감소세를 보임

- 2018년 전체 수입 중 중간재는 56.4%를 차지
 - 2010년 중간재 수입 비중은 60.1%로 최근 8년간 3.7%p 하락
 - 반제품 비중은 2010년 36.7%에서 2018년 36.1%로 큰 변화가 없으나 부품 및 부분품 비중(23.4%→20.3%)이 동기간 3.1%p 하락

<태국의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태국의 중간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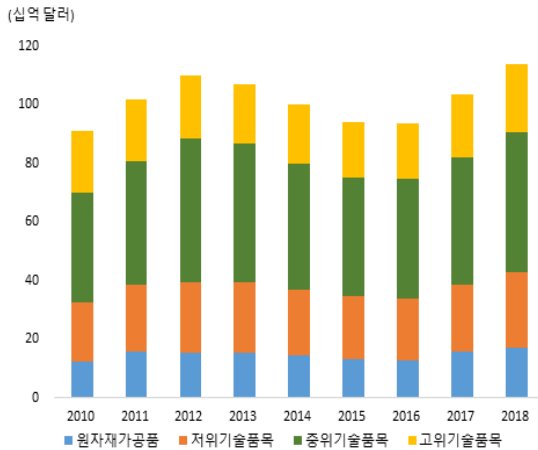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태국의 중간재 수입 중 중위기술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2018년 기준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은 각각 12.2%, 18.4%, 34.0%, 16.6%를 차지

- 2018년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비중은 2010년 대비 각각 0.8%p, 0.2%p 상승했으나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은 각각 0.2%p, 2.7%p 하락
- * 중간재 중 고위기술품목 비중 변화: 2010년, 19.4% → 2018년, 16.6%

<태국의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



<태국 중간재 수입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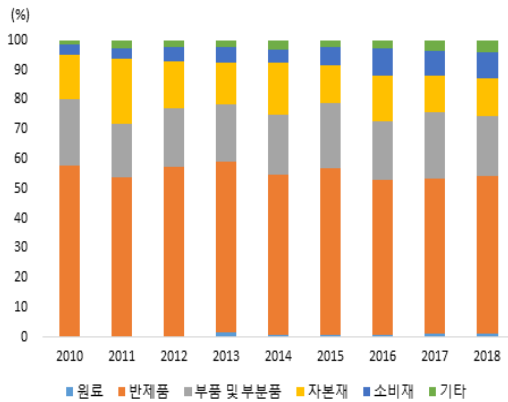
기술수준	2010	2018	증감
원자재가공품	11.4%	12.2%	0.8%p
저위기술품목	18.2%	18.1%	0.2%p
중위기술품목	34.2%	34.0%	-0.2%p
고위기술품목	19.4%	16.6%	-2.7%p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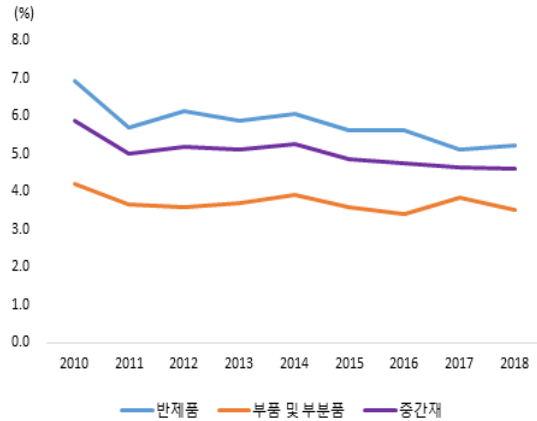
■ (對한국 수입) 對한국 총수입은 최근 8년간 9.8% 증가했으나 중간재 수입 규모는 정체됨

- 2018년 중간재 수입 규모는 2010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반제품 수입은 4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부품 및 부분품 수입은 18억 달러로 동기간 0.4% 감소
- 2018년 태국의 對한국 수입 중 중간재 수입은 전체의 73.3%를 차지
 - 2010년 80.0%였던 중간재 비중은 최근 8년간 가파른 감소세를 보임
 -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각각 53.1%, 20.2%로 2010년 대비 동반 감소
 - * 2010년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각각 57.7%, 22.3%
- 태국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은 2018년 4.6%로 2010년(5.9%) 대비 1.3%p 하락
 - 태국 반제품 수입 중 5.2%, 부품 및 부분품 수입 중 3.5%가 한국산 제품
 - * 2010년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의 한국제품 수입 비중은 각각 6.9%, 4.2%

<태국의 가공단계별 對한국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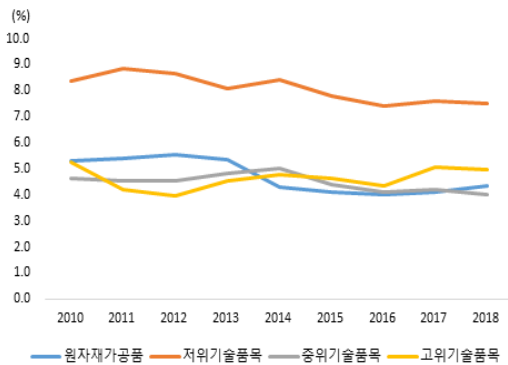
<태국의 중간재 수입 중 한국 비중>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 7.5%, 4.0%, 5.0%를 차지
 - 기술수준별 전 품목의 비중이 2010년 대비 소폭 하락

<태국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비중>



<태국의 기술수준별 對한국 수입 추이>

(백만 달러)

기술수준	2010	2018	수입증가율 ('10-'18)
원자재가공품	661	744	12.4%
저위기술품목	1,672	1,937	15.8%
중위기술품목	1,732	1,917	10.7%
고위기술품목	1,112	1,155	3.9%

주 : 중간재를 기술수준별로 분류 (원료 및 최종재는 제외)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고급 소비재 수입 분석

[연구 방법]

- 분석시장 :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 분석기간 : 2010~2018년
- 분석대상 : HS 6단위 전 품목 (UN Comtrade, ASEAN Stats)
- 분류방법

① BEC Code 활용해 소비재 추출

3단계	5단계	BEC코드	BEC제품명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주 :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참고하여 저자 작성. BEC코드 51은 품목 단위당 금액이 커서 본 보고서의 고급소비재 분류 시 제외

② 고급소비재 분류

- Lionel Fontagn'e, Sophie Hatte(2016)⁵⁾ 분류를 기준으로 재분류. 품목을 고급 제과류, 고급식기류, 실내장식, 시계 및 주얼리, 뷰티상품, 패션의류, 패션잡화, 주류, 문구스포츠 등으로 구성. 상세 코드는 별첨 참조

5) Lionel Fontagn'e, Sophie Hatte(2016). European High-End Product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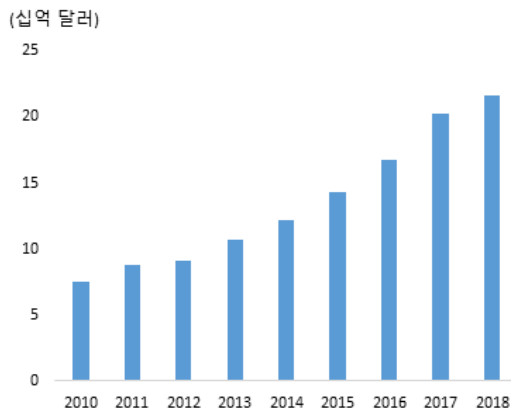
(1) 베트남

-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신흥방국 대비 소폭 상승
- 대세계 소비재 수입 중 패션잡화 비중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 소비재는 뷰티제품과 고급제과류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남

■ (對세계 수입)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상승했으며, 고급소비재 중 패션의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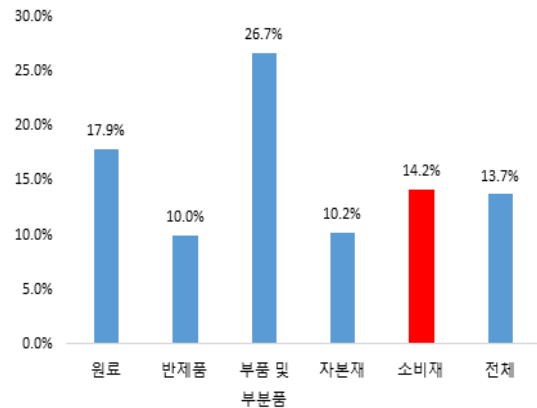
- 2018년 베트남 총수입 중 소비재는 216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88.5% 증가
 - 최근 8년간(2010~2018) 소비재의 연평균 증가율은 14.2%를 기록
 - *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3.7%
- 2018년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2010년(8.8%)과 비교해 0.3%p 상승

<베트남 소비재 수입 추이>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베트남 가공단계별 연평균 수입증가율 >



주 : 2010~2018 연평균 증가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고급소비재 수입 규모는 15.6억 달러를 기록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 전체 소비재(14.2%) 보다는 더디게 증가

- 베트남 전체 소비재 수입 중 고급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7.2%로 2010년(9.4%) 대비 2.2%p 하락
- 2018년 베트남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1위 품목은 패션의류, 2위는 뷰티제품, 3위는 실내장식으로 나타남
- 패션의류(42.1%→34.0%)와 뷰티제품(19.7%→17.6%)이 고급소비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대비 감소한 반면 패션잡화(6.2%→11.6%) 비중은 증가
- 고급식기류와 문구스포츠의 수입규모는 작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25%를 상회하며 시장규모가 6배 이상 성장

<베트남의 품목별 고급소비재 수입>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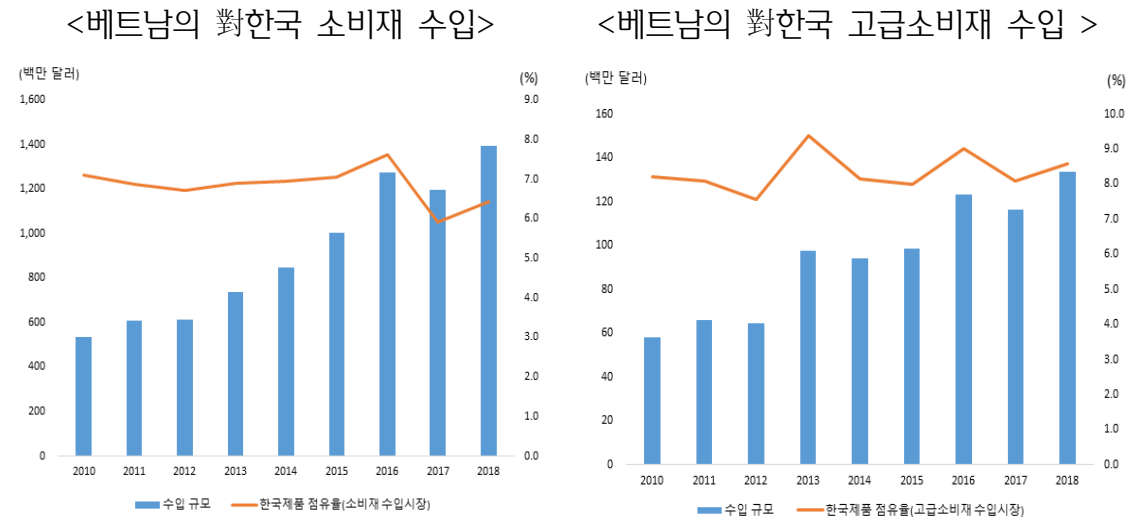
품목 분류	2010		2018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패션의류	296,387	42.1%	530,870	34.0%	7.6%	-8.1%p
뷰티제품	139,122	19.7%	274,733	17.6%	8.9%	-2.1%p
실내장식	93,568	13.3%	207,383	13.3%	10.5%	0.0%p
패션잡화	43,606	6.2%	180,743	11.6%	19.5%	5.4%p
시계 및 주얼리	59,525	8.4%	155,828	10.0%	12.8%	1.5%p
고급제과류	27,546	3.9%	87,696	5.6%	15.6%	1.7%p
주류	34,368	4.9%	58,481	3.7%	6.9%	-1.1%p
고급식기류	6,782	1.0%	42,274	2.7%	25.7%	1.7%p
문구스포츠	3,767	0.5%	23,569	1.5%	25.8%	1.0%p
총합	704,670	100%	1,561,577	100%	10.5%	-

주 : 2018년 기준 수입규모가 큰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對한국 수입) 뷰티제품의 수입 증가 영향으로 고급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제품 비중이 커지는 추세

- 2018년 베트남의 대한민국 소비재 수입은 1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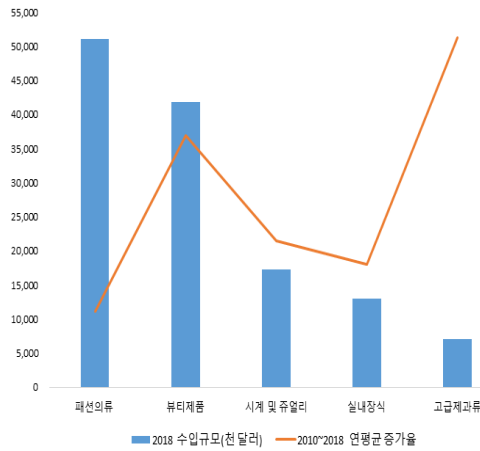
- 대한민국 수입 중 소비재 비중은 2010년 5.5%에서 2018년 2.9%로 하락
-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2018년 한국제품 점유율은 6.4%로 2010년 대비 0.7%p 하락
- 베트남의 대한민국 고급소비재 수입은 최근 8년간 (2010~2018) 연평균 11.0% 늘어나 2018년 1.3억 달러 기록
-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0년 8.2%에서 2018년 8.6%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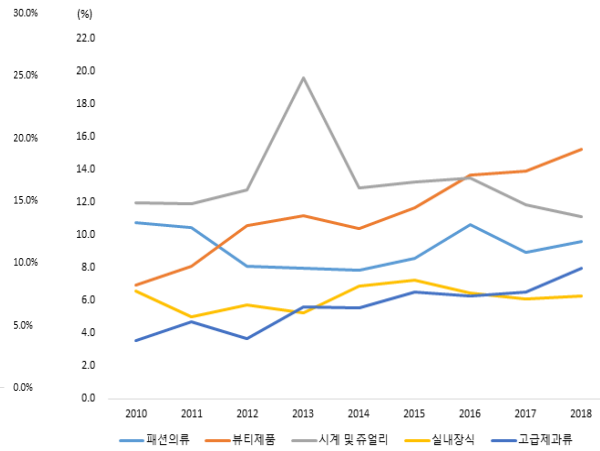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대한민국 고급소비재 수입 중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은 패션의류이며 뷰티 제품, 시계 및 주얼리, 실내장식, 고급제과류 순으로 뒤를 이음
- 패션의류 수입은 2010년 대비 60.0% 증가하며 5천만 달러를 상회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0%를 넘는 품목은 뷰티제품 (20.1%)과 고급제과류(28.0%)이며, 시계 및 주얼리의 연평균 증가율은 11.7%를 기록
- 패션의류, 뷰티제품, 시계 및 주얼리, 실내장식, 고급제과류의 각 품목별 수입 시장 내 점유율(2018년)은 각각 9.6%, 15.2%, 11.1%, 6.3%, 8.0%이며, 뷰티 제품의 점유율은 2010년 대비 8.3%p 상승

<베트남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품>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



주1 : 고급소비재 중 2018년 기준 상위 5개 수입품목(對한국)

주2 : 점유율은 각 품목별 수입시장 내 점유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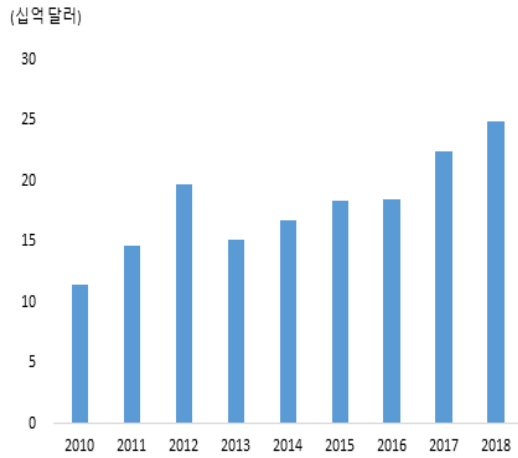
(2) 인도

- 고급소비재 수입은 전체 소비재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 소비재 수입시장의 유망품목은 패션의류, 패션잡화
- 한국제품은 패션의류, 뷰티제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對세계 수입) 소비재 수입은 가공단계별 다른 품목 군과 비교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며, 고급소비재 수입은 연평균(2010~2018) 15%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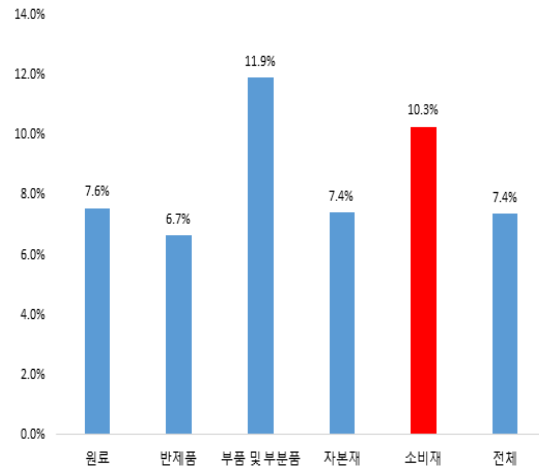
- 2018년 인도 총수입 중 소비재는 249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18.8% 증가
 - 최근 8년간(2010~2018)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가공단계별 제품 중 부품 및 부분품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 *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4%
- 2018년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2010년(3.2%)과 비교해 0.8%p 상승

<인도 소비재 수입 추이>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도 가공단계별 연평균 수입증가율 >



주 : 2010~2018 연평균 증가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고급소비재 수입 규모는 56.4억 달러를 기록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5.4%로 전체 소비재(10.3%) 보다 빠른 속도로 수입 증가
 - 인도 전체 소비재 수입 중 고급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22.6%로 2010년(15.7%) 대비 6.9%p 상승
- 시계 및 주얼리의 수입은 13.2억 달러로 고급소비재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
 - 패션의류(10.2%→21.7%), 패션잡화(12.7%→18.8%)가 고급소비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8년간 큰 폭으로 커진 반면 실내장식(27.7%→17.4%) 비중은 감소
 - 고급제과류와 고급식기류를 제외한 전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를 상회. 패션의류와 패션잡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6.9%, 21.2%를 기록

<인도의 품목별 고급소비재 수입>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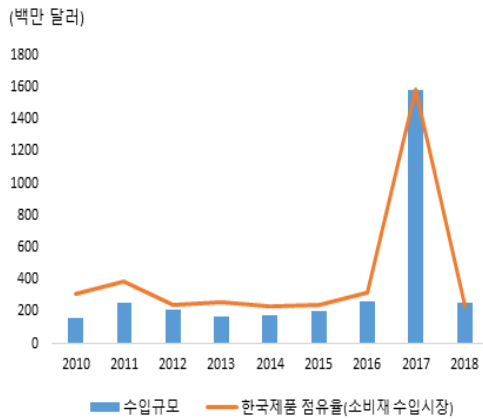
품목 분류	2010		2018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시계 및 주얼리	480,913	26.9%	1,322,495	23.5%	13.5%	-3.4%p
패션의류	182,267	10.2%	1,224,472	21.7%	26.9%	11.5%p
패션잡화	227,757	12.7%	1,058,032	18.8%	21.2%	6.1%p
실내장식	495,077	27.7%	979,310	17.4%	8.9%	-10.3%p
뷰티제품	222,841	12.5%	551,486	9.8%	12.0%	-2.7%p
주류	82,094	4.6%	302,036	5.4%	17.7%	0.8%p
고급제과류	46,161	2.6%	94,638	1.7%	9.4%	-0.9%p
고급식기류	39,993	2.2%	73,214	1.3%	7.9%	-0.9%p
문구스포츠	11,214	0.6%	29,582	0.5%	12.9%	-0.1%p
총합	1,788,318	100.0%	5,635,264	100.0%	15.4%	-

주 : 2018년 기준 수입규모가 큰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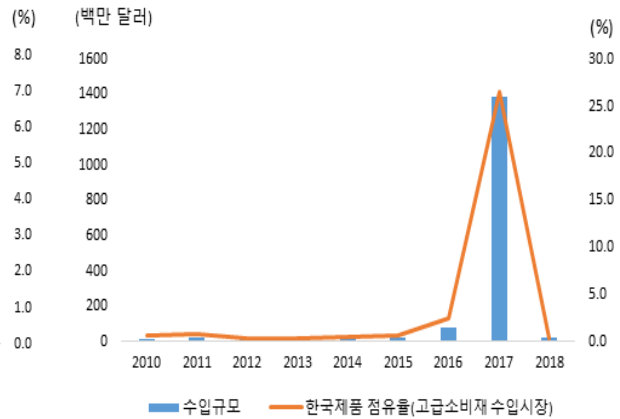
■ (對한국 수입) 인도의 소비재 수입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나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1%대에 불과

- 2018년 인도의 대한국 소비재 수입은 2.6억 달러를 기록
 - 대한국 수입 중 소비재 비중은 2010년 1.6%에서 2018년 1.3%로 하락
 -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8년 1.0%로 2010년(1.4%) 대비 0.4%p 하락
- 2018년 인도의 대한국 고급소비재 수입은 약 2천만 달러로 최근 8년간 (2010~2018) 연평균 7.8% 늘어남
 -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0년 0.6%에서 2018년 0.3%로 하락
 - 2017년 고급소비재 수입 급증은 GST(통합간접세) 도입으로 금제품에 부과되던 12.5%의 상계관세가 3% GST 세율로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 이후 인도 정부는 금 관련 제품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며 귀금속 수입은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인도의 對한국 소비재 수입>



<인도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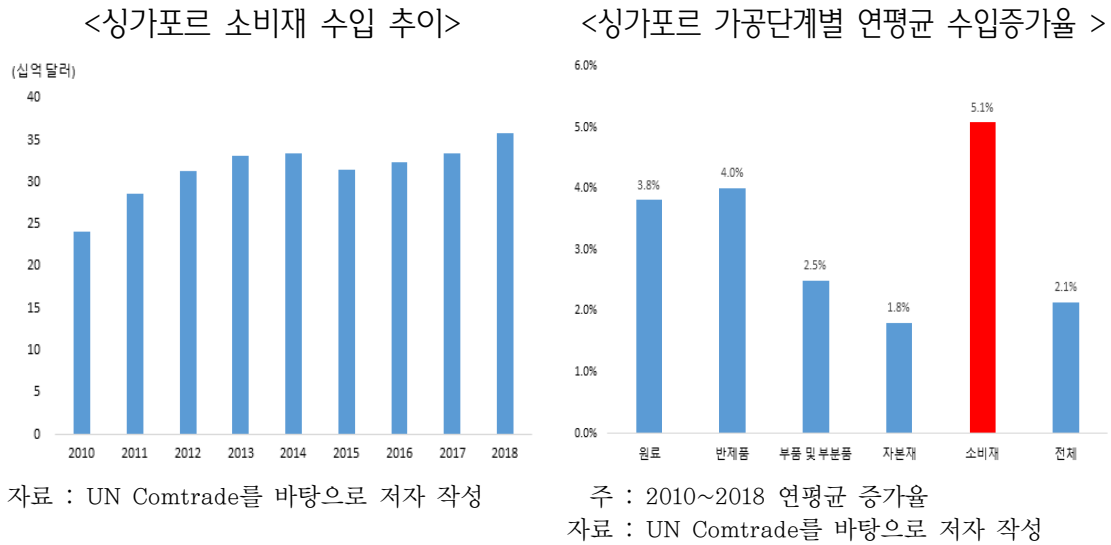
- 2018년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중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은 뷰티제품이며 실내 장식, 시계 및 주얼리, 패션잡화 순으로 뒤를 이음
 - 뷰티제품 수입은 2010년 대비 197.2% 증가해 9백만 달러를 상회했으며, 실내 장식은 29.8% 증가한 5백만 달러를 기록
 - 수입금액의 연평균 증가율(2010년~2018년)이 10%를 넘는 품목은 패션의류 (20.0%) 뷰티제품(14.6%), 패션잡화(13.5%) 등임
 - 각 품목별 수입시장 내 점유율(2018년)이 모두 2%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싱가포르

- 신남방국가 중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규모가 가장 큼
- 시계 및 주얼리 수입이 가장 많으며, 뷰티제품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음
-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은 뷰티제품과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급증

- (對세계 수입)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소비재는 소비재 수입의 45%를 상회

- 2018년 싱가포르 소비재 수입은 359억 달러로 2010년 대비 48.7% 증가
 - 최근 8년간(2010~2018)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가공단계별 제품 중 가장 빠르게 증가
- 2018년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2010년(7.7%)과 비교해 2.0%p 상승



- 2018년 고급소비재 수입 규모는 170억 달러를 기록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9%로 전체 소비재(5.1%)보다 빠르게 증가
 - 싱가포르 전체 소비재 수입 중 고급소비재가 47.4%를 차지하며 2010년 (44.7%) 대비 2.7%p 상승
- 2018년 시계 및 주얼리, 뷰티제품의 수입 합계는 88억 달러로 고급 소비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음
 - 시계 및 주얼리가 고급소비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대비 작아진 반면(37.8%→27.8%) 뷰티제품(14.7%→24.2%), 패션잡화(9.5%→14.4%) 비중은 커짐

- 연평균 증가율은 뷰티제품(12.6%)이 가장 높으며 패션잡화(11.5%), 담배 주류(6.5%), 패션의류(4.3%) 순으로 뒤를 이음

<싱가포르의 품목별 고급소비재 수입>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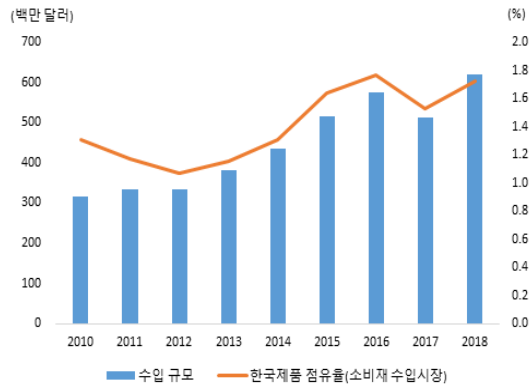
품목 분류	2010		2018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시계 및 주얼리	4,073,956	37.8%	4,718,370	27.8%	1.9%	-10.0%p
뷰티제품	1,587,035	14.7%	4,111,470	24.2%	12.6%	9.5%p
패션잡화	1,028,450	9.5%	2,455,267	14.4%	11.5%	4.9%p
패션의류	1,707,315	15.8%	2,382,368	14.0%	4.3%	-1.8%p
주류	1,354,172	12.6%	2,236,668	13.2%	6.5%	0.6%p
실내장식	727,316	6.7%	713,320	4.2%	-0.2%	-2.5%p
고급제과류	197,539	1.8%	295,419	1.7%	5.2%	-0.1%p
고급식기류	56,090	0.5%	56,215	0.3%	0.0%	-0.2%p
문구스포츠	51,290	0.5%	28,634	0.2%	-7.0%	-0.3%p
총합	10,783,163	100.0%	16,997,731	100.0%	5.9%	-

주 : 2018년 기준 수입규모가 큰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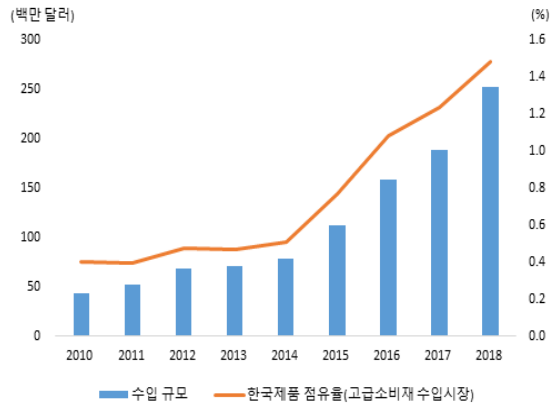
■ (對한국 수입) 뷰티제품,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한국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

- 2018년 싱가포르의 대한국 소비재 수입은 6.2억 달러
 - 대한국 수입 중 소비재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8년 4.3%로 상승
 -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8년 1.7%로 2010년 대비 0.4%p 상승
- 2018년 싱가포르의 대한국 고급소비재 수입은 2.5억 달러로 최근 8년간 (2010~2018) 연평균 24.5% 늘어남
 -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0년 0.4%에서 2018년 1.5%로 상승

<싱가포르의 對한국 소비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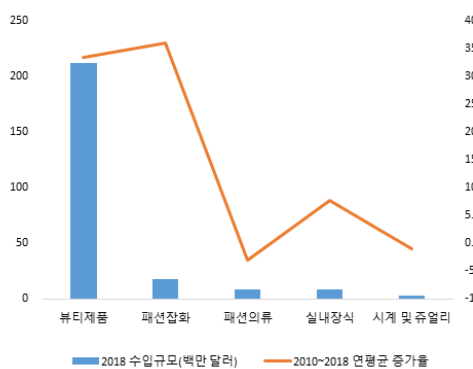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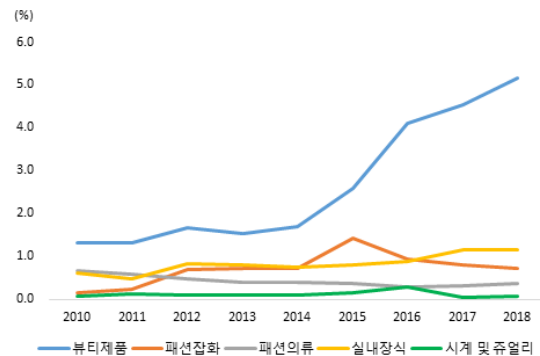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중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은 뷰티제품이며 패션잡화, 패션의류, 실내장식, 시계 및 주얼리 순으로 뒤를 이음
 - 패션의류 수입은 2.1억으로 2010년 수입규모 대비 10배가 넘음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30%를 넘는 품목은 뷰티제품 (33.4%)과 패션잡화(36.1%)이며, 실내장식은 7.8%를 기록
 - 패션의류, 뷰티제품, 시계 및 주얼리, 실내장식, 고급제과류의 각 품목별 수입 시장 내 점유율(2018년)은 각각 5.2%, 0.7%, 0.4%, 1.2%, 0.1%이며, 뷰티제품의 점유율은 2010년 대비 3.9%p 상승

<싱가포르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품목>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



주1 : 고급소비재 중 2018년 기준 상위 5개 수입품목(對한국)

주2 : 점유율은 각 품목별 수입시장 내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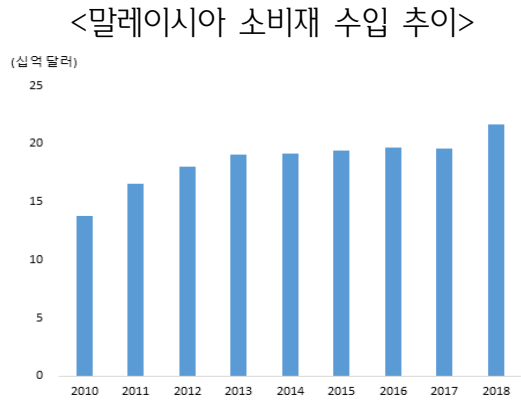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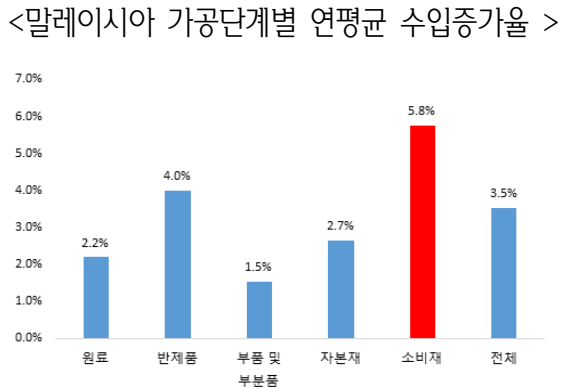
- 소비재 수입 중 고급소비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패션의류,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고급소비재 수입이 급증
- 한국제품은 고급제과류, 패션잡화, 뷰티제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높음

■ (對세계 수입) 소비재 수입은 가공단계별 다른 품목과 비교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 2018년 말레이시아 총수입 중 소비재는 21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56.6% 증가
 - 최근 8년간(2010~2018)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가공단계별 다른 제품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늘어남
- 2018년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로 2010년(8.4%)과 비교해 1.6%p 상승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 2010~2018 연평균 증가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고급소비재 수입 규모는 56억 달러를 기록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전체 소비재(5.8%)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 말레이시아 전체 소비재 수입 중 고급소비재가 25.7%를 차지. 고급소비재 비율은 2010년(17.9%) 대비 7.8%p 상승

- 2018년 말레이시아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1위 품목은 패션의류, 2위는 시계 및 주얼리, 3위는 패션잡화로 나타남
 - 패션의류 수입은 14.9억 달러로 고급소비재 전체 수입에서 26.9%를 차지
 - 시계 및 주얼리(22.5%→17.4%), 뷰티제품(21.9%→13.5%)이 고급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대비 작아진 반면 패션잡화 비중은 동기간 4.5%p 상승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고급소비재 수입>

(천 달러)

품목 분류	2010		2018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패션의류	309,174	12.5%	1,494,829	26.9%	21.8%	14.4%p
시계 및 주얼리	556,630	22.5%	985,950	17.7%	7.4%	-4.8%p
패션잡화	278,994	11.3%	876,930	15.8%	15.4%	4.5%p
뷰티제품	542,686	21.9%	753,060	13.5%	4.2%	-8.4%p
실내장식	381,589	15.4%	724,596	13.0%	8.3%	-2.4%p
주류	242,630	9.8%	483,727	8.7%	9.0%	-1.1%p
고급제과류	105,839	4.3%	173,160	3.1%	6.3%	-1.2%p
고급식기류	23,075	0.9%	48,931	0.9%	9.9%	-0.1%p
문구스포츠	33,994	1.4%	23,269	0.4%	-4.6%	-1.0%p
총합	2,474,612	100.0%	5,564,452	100.0%	1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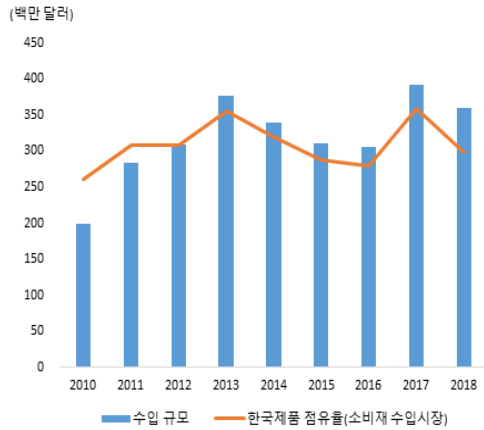
주 : 2018년 기준 수입규모가 큰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對한국 수입) 뷰티상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10%를 상회하지만 뷰티상품 외 다른 소비재 수입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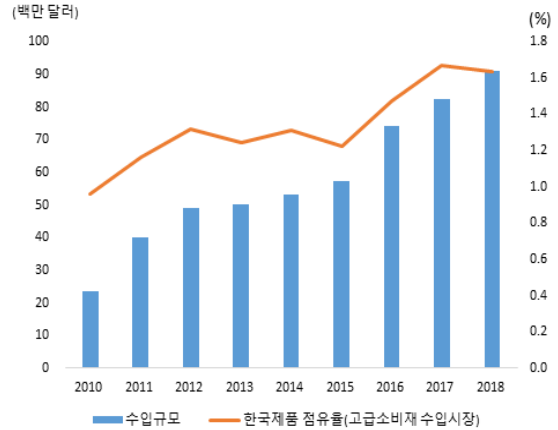
- 2018년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소비재 수입은 3.6억 달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79.7% 증가
 - 대한민국 수입 중 소비재 비중은 2010년 2.3%에서 2018년 3.7%로 상승했으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8년 1.7%로 2010년 대비 0.3%p 상승
- 2018년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고급소비재 수입은 약 9천만 달러로 최근 8년간 (2010~2018) 연평균 18.3% 늘어남

-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1.6%로 상승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소비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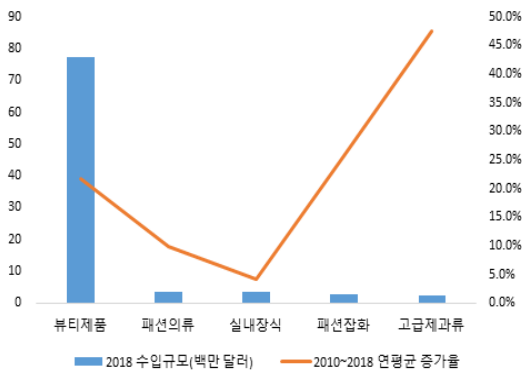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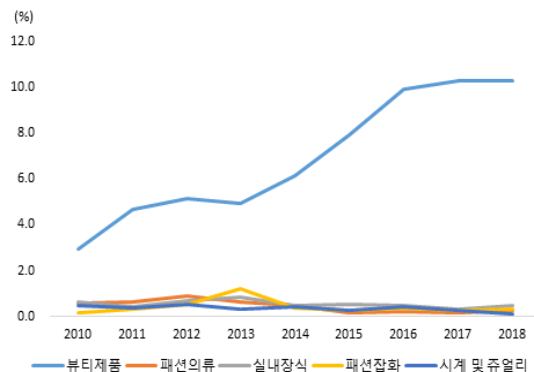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대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중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은 뷰티제품으로 수입 규모는 7천7백만 달러에 달함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고급제과류 (47.5%)이며, 패션잡화(25.7%), 뷰티제품(21.7%) 순으로 뒤를 이음
 - 뷰티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2018년)은 10.3%를 기록해 2010년 대비 7.3%p 상승하였으나 다른 품목의 점유율은 1%이하에 그침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품>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



주1 : 고급소비재 중 2018년 기준 상위 5개 수입품목(對한국)

주2 : 점유율은 각 수입시장 내 점유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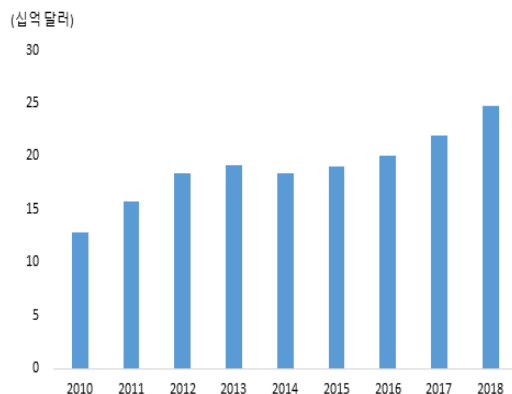
(5) 태국

- 소비재(8.6%)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총수입(4.0%)보다 훨씬 높음
-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최근 8년간 2배 이상 상승
- 한국제품은 뷰티제품의 선전 속에 패션잡화 수입이 급증

■ (對세계 수입) 고급소비재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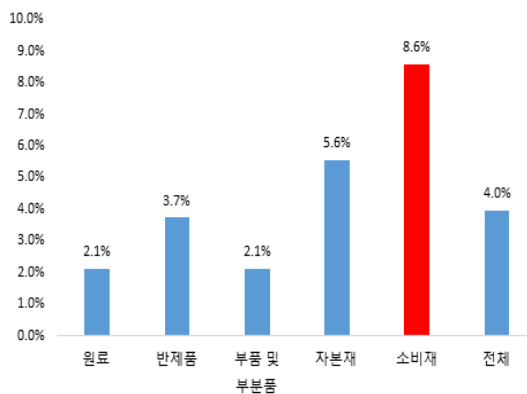
- 2018년 소비재 수입은 24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19억 달러 증가
 - 최근 8년간(2010~2018)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4.0%)보다 4.6%p 높음
- 2018년 총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2010년(7.0%)과 비교해 2.9%p 상승

<태국 소비재 수입 추이>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태국 가공단계별 연평균 수입증가율 >



주 : 2010~2018 연평균 증가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고급소비재 수입 규모는 59.6억 달러를 기록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6%로 전체 소비재(8.6%)보다 빠르게 증가
 - 태국 전체 소비재 수입 중 고급소비재가 24.1%를 차지해 2010년(20.8%) 대비 3.3%p 상승

- 2018년 태국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1위 품목은 시계 및 주얼리, 2위 패션의류, 3위 뷰티제품으로 나타남
 - 시계 및 주얼리 수입은 14.1억 달러로 고급소비재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6%
 - 연평균 증가율은 패션의류(15.1%)가 가장 높으며 뷰티제품(15.0%), 패션 잡화(13.8%), 고급제과류(11.3%) 순으로 뒤를 이음

<태국의 품목별 고급소비재 수입>

(천 달러)

품목 분류	2010		2018		연평균 증가율	비중 변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시계 및 주얼리	874,313	32.9%	1,406,229	23.6%	6.1%	-9.3%p
패션의류	419,387	15.8%	1,294,267	21.7%	15.1%	5.9%p
뷰티제품	418,961	15.8%	1,278,916	21.4%	15.0%	5.7%p
패션잡화	317,188	11.9%	891,113	14.9%	13.8%	3.0%p
실내장식	264,665	10.0%	533,972	9.0%	9.2%	-1.0%p
주류	203,631	7.7%	276,994	4.6%	3.9%	-3.0%p
고급제과류	89,866	3.4%	211,930	3.6%	11.3%	0.2%p
고급식기류	25,437	1.0%	48,423	0.8%	8.4%	-0.1%p
문구스포츠	44,142	1.7%	22,668	0.4%	-8.0%	-1.3%p
총합	2,657,591	100.0%	5,964,511	100.0%	1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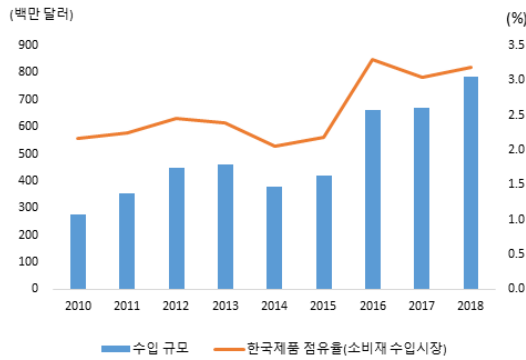
주 : 2018년 기준 수입규모가 큰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對한국 수입) 패션잡화, 패션의류를 중심으로 고급소비재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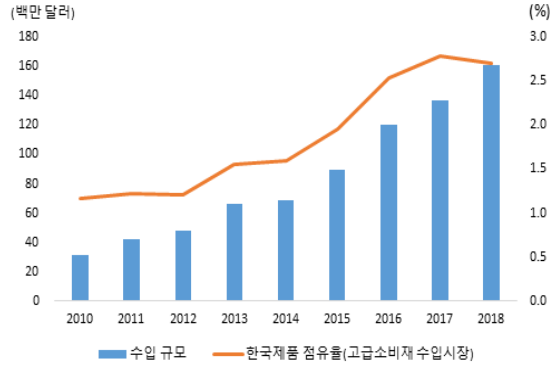
- 2018년 태국의 대한국 소비재 수입은 1.6억 달러로 2010년보다 5배 증가
 - 대한국 수입 중 소비재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18년 8.9%로 5.4%p 상승
 - * 가공단계별 비중 변화: 원료(1.0%p), 반제품(-4.6%p), 부품 및 부분품(-2.1%p), 자본재(2.5%p)
 -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8년 3.2%로 2010년(2.2%) 대비 1.0%p 상승
- 2018년 태국의 대한국 고급소비재 수입은 1.6억 달러로 최근 8년간 (2010~2018) 연평균 22.9% 늘어남

-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0년 1.2%에서 2018년 2.7%로 상승

<태국의 對한국 소비재 수입>



<태국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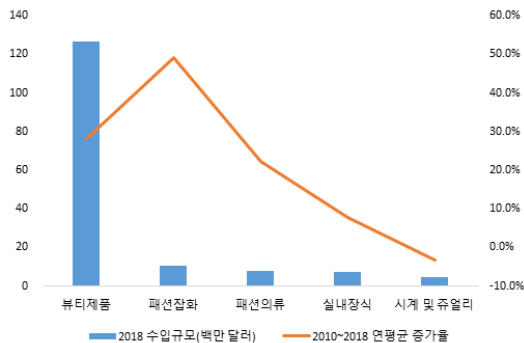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대한국 고급소비재 수입 중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은 뷰티제품이며 패션잡화, 패션의류, 실내장식, 시계 및 주얼리 순으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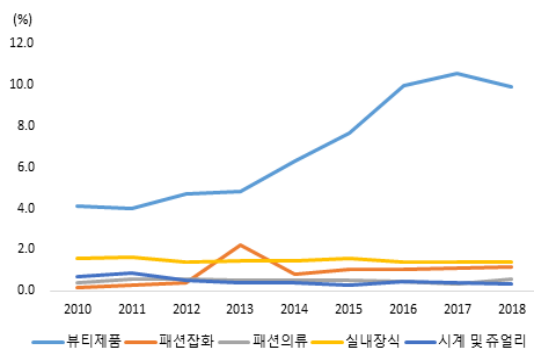
- 패션잡화의 연평균 증가율(2010~2018)은 49%를 상회하며 수입규모가 20배 이상 증가함. 뷰티제품, 패션의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8.3%, 22.3%를 기록

- 뷰티제품, 패션잡화, 패션의류, 실내장식, 시계 및 주얼리의 각 품목별 수입 시장 내 점유율(2018년)은 각각 9.9%, 1.2%, 0.6%, 1.4%, 0.3%

<태국의 對한국 고급소비재 수입품>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



주1 : 고급소비재 중 2018년 기준 상위 5개 수입품목(對한국)

주2 : 점유율은 각 품목별 수입시장 내 점유율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시사점 및 결론

■ 신남방 주요국의 수입구조는 국가별 상이한 형태로 변화

- (베트남) 중간재가 총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반제품의 수입 비중은 작아진 반면,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이 큰 폭으로 커짐
- (인도) 원료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중간재는 반제품 중심으로 수입 중 이나 최근에는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 (싱가포르) 중간재 중 부품 및 부분품의 수입 규모가 반제품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간재와 소비재 모두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
- (말레이시아-태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감소했으며 소비재 비중은 커지는 추세를 보임. 말레이시아는 중간재 비중의 하락폭이 가장 크며, 태국은 소비재 비중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2018년 신남방 주요국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국가	원료	중간재		최종재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베트남	7.9% (+2.0%p)	37.2% (-11.4%p)	27.8% (+16.1%p)	13.2% (-3.8%p)	9.1% (+0.3%p)
인도	35.5% (+0.5%p)	36.4% (-2.0%p)	11.4% (+3.2%p)	10.9% (0.0%p)	4.0% (+0.8%p)
싱가포르	9.6% (+1.2%p)	17.0% (+2.3%p)	34.9% (+0.9%p)	13.1% (-0.4%p)	9.7% (+2.0%p)
말레이시아	8.6% (-0.9%p)	27.2% (+1.0%p)	30.0% (-5.1%p)	14.3% (-1.0%p)	10.0% (+1.6%p)
태국	15.4% (-2.4%p)	36.1% (-0.6%p)	20.3% (-3.1%p)	15.9% (+1.8%p)	9.9% (+2.9%p)

주1 : 중간재=반제품+부품 및 부분품

주2 : ()는 2010년 비중 대비 증감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간재 수입 비중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베트남과 인도를 중심으로 중위·고위기술 중간재 수요는 증가세

-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총투입 대비 수입 중간재 비중이 감소세를 보임⁶⁾
 - 말레이시아의 총투입 대비 수입 중간재 비중은 2010년 20.4%에서 2015년 17.0%로, 태국은 동기간 16.9%에서 16.2%로 하락했으나 국내부가가치, 국산 중간재 비중은 증가함
- 베트남과 인도는 컴퓨터, 자동차, 전기부품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해외기업의 제조공장 설립 및 중간재 수입이 늘어남
 - 베트남은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공장설립 등 해외기업의 투자 진출이 급증하면서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2018년 대인도 FDI는 컴퓨터(58.2억 달러), 자동차(23.4억 달러), 통신 산업(22.6억 달러)에 집중되면서 해당 산업과 관련된 중위·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이 늘어남
- 한편, 기술수준별 우리제품의 중간재 점유율은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대부분 낮아짐. 2018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중위·고위기술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10년 대비 하락함

<2018년 신남방주요국 중간재 수입 중 기술수준별 비중>

국가	원자재가공품	저위기술품목	중위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
베트남	9.4% (-1.7%p)	20.4% (-7.0%p)	27.9% (-8.5%p)	33.9% (+25.4%p)
인도	24.6% (-3.2%p)	8.4% (-1.0%p)	27.3% (+2.9%p)	13.3% (+5.5%p)
싱가포르	7.4% (+0.4%p)	5.5% (-0.9%p)	29.6% (+0.9%p)	47.8% (-3.2%p)
말레이시아	13.9% (+1.3%p)	9.9% (+1.0%p)	27.4% (+2.9%p)	38.5% (-5.7%p)
태국	12.2% (+0.8%p)	18.4% (+0.2%p)	34.0% (-0.2%p)	16.6% (-2.7%p)

주1 : 원료, 소비재, 자본재 제외

주2 : ()는 2010년 비중 대비 증감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심혜정, 조의운(2019), 아세안 무역환경 진단과 우리 수출 전략 : 국산 중간재, 수입 중간재,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총투입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투입 구조 분석

■ 총수입 중 소비재 비중은 신남방 주요 5개국에서 모두 커졌으며, 고급소비재 수입 수요는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가공단계별 연평균(2010~2018) 수입 증가율에서 소비재가 가장 높게 나타남. 베트남과 인도는 부품 및 부분품 다음으로 소비재가 높음
- 베트남을 제외하면 고급소비재 수입증가 속도는 소비재보다 빠름
 - 최근 8년간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규모는 인도가 세 배 이상 성장했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는 두 배 이상 커짐
 - 싱가포르는 소비재 수입 중 47%가 고급소비재로, 신남방 주요국 중 고급 소비재 수입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신남방주요국 소비재 수입시장>

국가	소비재		고급소비재	
	금액 (천 달러)	연평균 증가율 (2010~2018)	금액 (천 달러)	연평균 증가율 (2010~2018)
베트남	21,610,540	14.2%	1,561,577	10.5%
인도	24,929,981	10.3%	5,635,264	15.4%
싱가포르	35,863,340	5.1%	16,997,731	5.9%
말레이시아	21,654,344	5.8%	5,564,452	10.7%
태국	24,725,678	8.6%	5,964,511	10.6%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
 -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한국 점유율은 상승했으며, 태국에서 상승폭(1.5%p)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인도는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국가지만 우리나라 진출은 더딘 것으로 조사됨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연도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2010년	8.2%	0.6%	0.4%	1.0%	1.2%
2018년	8.6%	0.3%	1.5%	1.6%	2.7%
증 감	+0.4%p	-0.3%p	+0.9%p	+0.6%p	+1.5%p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유망품목)⁷⁾ 신남방 주요국 모두 패션의류, 뷰티제품, 패션잡화, 시계 및 주얼리에 대한 수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평균(2010~2018)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패션잡화, 패션의류, 뷰티제품 등이 꼽힘
 - (베트남 유망품목) 실내장식, 패션잡화, 시계 및 주얼리
 - (인도 유망품목) 패션의류, 뷰티제품, 패션잡화, 시계 및 주얼리
 - (싱가포르 유망품목) 뷰티제품, 패션잡화
 - (말레이시아 유망품목) 패션의류, 패션잡화
 - (태국 유망품목) 패션의류, 뷰티제품, 패션잡화
- 우리나라 뷰티제품, 패션잡화는 신남방 주요 5개국에서 빠른 속도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패션의류는 인도와 태국의 수입수요에 맞게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임
 - 베트남의 실내장식, 인도의 시계 및 주얼리, 말레이시아의 패션의류 시장은 수입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 진출이 더딘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고급소비재 중 뷰티제품을 제외하면 다른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낮은 수준으로 뷰티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7) 유망품목은 수입규모 상위 5개 품목 중 전세계 연평균(2010~2018) 수입증가율이 10% 이상인 품목

<신남방주요국 고급소비재 수입시장 품목별 분석>

품목 분류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패션의류		◎ ★		◎	◎ ★
뷰티제품	★	◎ ★	◎ ★	★	◎ ★
실내장식	◎				
패션잡화	◎ ★	◎ ★	◎ ★	◎ ★	◎ ★
시계 및 주얼리	◎ ★	◎			
고급제과류	◎ ★			★	◎ ★
주류		◎			
고급식기류	◎				
문구스포츠	◎ ★	◎			

주1 : ◎ 전세계 연평균(2010~2018) 수입증가율이 10% 이상

주2 : ★ 대한민국 연평균(2010~2018) 수입증가율이 10% 이상

주3 : 음영은 국가별 수입 규모 상위 5개 품목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신남방권은 우리기업의 핵심시장인 만큼 변화하는 수입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함

- 신남방권 중간재 수입 수요는 감소세에 있고, 우리제품의 중간재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응 마련 필요
 - 중간재 수출은 기술수준을 고려한 국가별 전략을 마련해야 함. 인도는 중위·고위기술 중간재, 베트남은 고위기술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관련 품목의 우리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위·고위기술 중간재 비중이 높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중간재 수입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간재 외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
- 소비재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특히 신남방권 주요국에서 고급 소비재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대비 필요
 - 신남방권 국가에서 소비재 수입 비중은 아직 10% 내외이지만 2010년 이후 중간재 수입 비중은 감소세며 소비재 수입 비중은 증가세가 뚜렷함
 - 신남방권 내 늘어나는 소비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뷰티제품 외 패션 의류, 실내장식, 패션잡화에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 해야 함

[별첨]

■ 고급소비재 HS 코드 분류

품목 분류	HS 6단위						
고급식기류	691110	691190	691200	691310	691390	701321	701329
	701331	701332	701339	701391	101399	821110	821191
	821193	821410	821510	821591	821599		
고급제과류	170490	180631	180632	180690			
주류	220410	220421	220429	220820	220830	220840	220850
문구스포츠	950631	950639	960830	960891			
뷰티제품	330300	330410	330420	330430	330491	330499	330510
	330710	330720	330730	330790	340111	340119	340120
시계 및 주얼리	910111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21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1310	911320
	911390	711311	711319	711320	711411	711419	711420
	711610	711620	900410	900490	910111	910112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1	910229	910291	910299	911390	960810	960820
	960839	960840	960910				
실내장식	490110	490191	490199	490300	490591	490599	491000
	570110	570190	570210	570231	570232	570239	570241
	570242	570249	570251	570252	570259	570291	570292
	570299	570310	570320	570390	570490	570500	580500
	630120	630130	630140	630190	630210	630221	630222
	630229	630231	630232	630239	630240	630251	630252
	630253	630259	630260	630291	630292	630293	630299
	630311	630312	630319	630391	630392	630399	630411
	630419	630491	630492	630493	630499	630790	630800
	940140	940150	940161	940169	940171	940179	940340
	940350	940360	940370	940380	961320	961380	
패션잡화	420100	420211	420212	420219	420221	420222	420231
	420232	420239	420291	420292	420299	420500	640320
	640330	640351	640359	640391	640399	640411	640419
	640420	640510	640520	640590	960500		

패션의류	420310	420329	420330	420340	430310	430390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1
	610312	610319	610321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1	610412	610413	610419	610421	610422	610423
	610429	610431	610432	610433	610439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711	610712	610719	610721
	610722	610729	610791	610792	610799	610811	610819
	610821	610822	610829	610831	610832	610839	610891
	610892	610899	610910	610990	611020	611030	611090
	611110	611120	611130	611190	611231	611239	611241
	611249	611300	611511	611519	611520	611591	611592
	611593	611599	611691	611692	611699	611720	611780
	611790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2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10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2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10	620920	620930
	62099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1	621132	621133	621139	621141
	621142	621143	621149	621210	621220	621230	621290
	621320	621410	621420	621430	621440	621490	621510
	621590	621600	621710	621790	650300	650400	650510
	650590	650699					

[참고문헌]

강성은, 2019,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심혜정 외, 2019, 아세안 무역환경 진단과 우리 수출 전략, 한국무역협회

정재완 외, 2018,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 배경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의윤, 2019, 최근 인도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진단,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2017, 새로운 수출 활로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

Lionel Fontagn'e, Sophie Hatte, 2016, European High-End Product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UNSD, 2007, Future revision of the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신남방권 주요국 수입구조 분석

Trade Focus 2020년 10호

발행인 | 김영주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 2020년 4월 17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